

주간 보험 동향

200 1.4.2	동향분석팀	제 75호
1. 금주의 Highlight ◆ 2월중 산업활동 동향 2. 금융동향 ◆ 금리 : 전주대비 0.48%p 상승 ◆ 환율 : 원/달러 상승, 엔/달러 상승 ◆ 주가 : 전주대비 2.7% 하락 3. 보험산업 동향 ◆ 공적자금관리위원회, 부실 생보사 P&A방식으로 처리 ◆ 사업비차배당제도 4월부터 도입 ◆ 보험사, 3월 결산을 앞두고 주가지수에 비상		

1. 금주의 Highlight : 2월중 산업활동 동향

- 통계청이 발표한 '2월중 산업활동 동향'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이 다소 회복되어 생산, 출하 등 실물경제지표의 증가율 둔화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2월중 생산은 반도체의 지속적인 생산증가와 기타 운송장비, 기계장비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8.6% 증가를 보임.
 - 출하는 자동차의 내수회복과 기타운송장비, 기계장비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.4% 증가.
 - 생산자제품재고는 생산보다 출하가 다소 부진을 보인 반도체 등의 일부업종에서 재고가 증가하였으나, 기타전기기계, 가구 등이 감소하여 전월보다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15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2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이 다소 회복된데 기인하여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1.0%p 증가한 74.9%로 나타남.
- 2월중 도소매판매는 지난해 2월 설 특수에 따른 상대적 요인으로 소매업의 매출이 둔화되었지만, 자동차 판매와 도매업의 매출신장으로 전년동월대비 1.3% 증가를 보임.
- 2월중 설비투자는 정보통신 관련설비와 승합차 등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5.3% 감소를 보인 반면, 국내 기계수주액은 공공부문의 발주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.8% 증가하였음.
 - 2월중 건설기성액은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설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.8% 증가하였음.
- 2월중 동행종합지수는 시멘트소비량, 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 등 8개 지표가 평균증감률을 하회하여 전월에 비해 0.1% 감소함.
 - 2월중 선행종합지수는 건축허가면적, 입·이직자비율 등 5개 지표가 평균증감률을 상회하여 전월보다 0.3% 증가.

2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현대건설 처리 문제로 인한 불안감 증폭, 높은 수준을 보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등에 따른 경기 조기회복 우려, 환율 급등세 반전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시현. 전주 대비 0.48%p 상승.
- 국채 금리도 전주 대비 0.55%p 상승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26일	27일	28일	29일	30일	전주대비
회사채	7.14	7.17	7.31	7.51	7.69	+0.48%p
국 채	5.68	5.72	5.88	6.12	6.31	+0.55%p

□ 환율

- 원화는 달러/엔 환율하락, 미국증시 상승세의 영향으로 소폭 강세를 보이다가 주말 달러/엔 환율 급등으로 인한 불안감 확산으로 역내외 매수세가 강화되며 정유사 등 불안감에 편승한 기업들의 결제수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송금수요 유입으로 대폭 약세 시현.
- 엔화는 급격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이식매로 소폭 강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 예상보다 저조한 일본 2월 산업생산 발표, 닛케이 주가급락 등의 영향으로 약세로 반전.
- 유로화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유로 3월 M3 증가율 발표, ECB의 현 금리수준 유지결정에 대한 실망감, 1년반만에 최저치를 보인 佛 3월 기업경기지수 발표에 따른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약세 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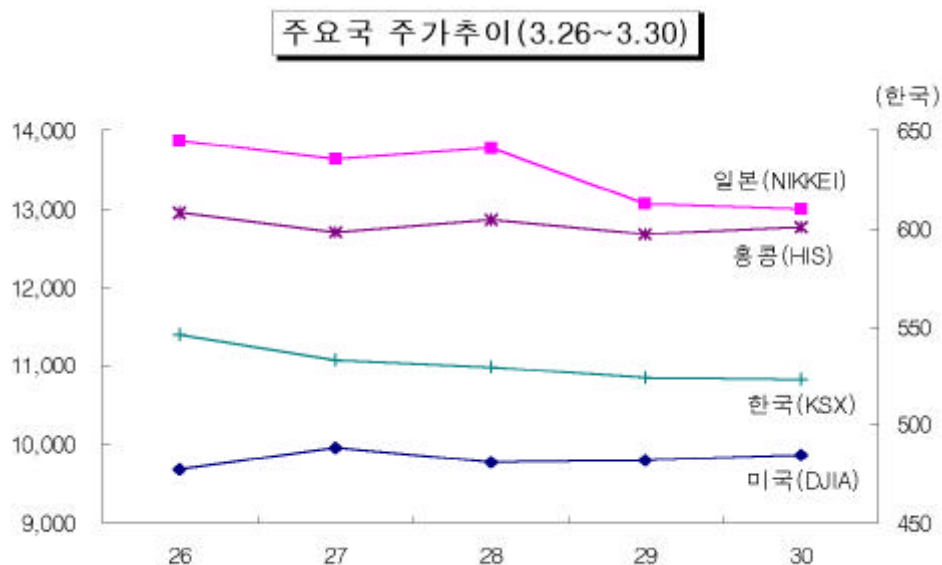
구 분	26일	27일	28일	29일	30일	전주대비
원/ 달러	1,310.50	1,309.50	1,304.50	1,318.60	1,329.00	+21.90
원/ 100엔	1,064.58	1,068.98	1,067.34	1,071.16	1,064.05	-0.36
엔/ 달러	122.64	122.24	122.31	123.71	125.51	+2.72
달러/ 유로	0.8958	0.8935	0.8861	0.8832	0.8767	-0.01

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원/달러환율 상승,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과 현대건설 문제, 미국 증시 하락반전 등 대내외적 악재로 하락세 시현.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2.7% 하락.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미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발표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업체들의 실적 경고 및 월트디즈니의 감원 계획이 발표되며 경기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되살아나며 하락세로 반전. 전주대비 3.9% 상승.
- 일본은 1.6% 하락.
- 홍콩은 1.4% 상승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	26일	27일	28일	29일	30일	전주대비
한 국(KSX)	545.98	532.90	529.03	523.80	523.22	-14.74
미 국(DJIA)	9,687.53	9,947.54	9,785.35	9,799.06	9,878.78	+374.00
일본(NIKKEI)	13,862.31	13,638.33	13,765.51	13,072.36	12,999.70	-214.84
홍 콩(HIS)	12,950.49	12,707.90	12,851.41	12,677.89	12,760.64	+177.28



3. 보험산업동향

□ 공적자금관리위원회, 부실 생보사 P&A방식으로 처리

-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현대, 삼신, 한일생명을 계약이전(P&A)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3개사는 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하여 사전통지, 계약이전결정, 공적자금 투입, 계약이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.
- 금감위에 의하면 현대, 삼신생명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통해 1주일간의 의견제출기회를 주게 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금감위와 재경부가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됨.
-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쌍용캐피탈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분 510억원을 회수하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일정 정도의 회수기간을 줄 계획이나 여신회수 기간, 사전통지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.
- 금감위가 계약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작업이 이루어지며, 이 결과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계약이전을 하게 될 예정임.

□ 사업비차배당제도 4월부터 도입

- 금감원은 생명보험, 장기손해보험,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에서 이미 실시중인 위험률차배당 및 이자율차배당과 동일한 1년 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업비차배당을 4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함.
- 사업비차배당제도는 사업비차이익 발생시 이를 재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로써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×사업비차배당율에 의해서 산출되며, 배당률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됨.
-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제도는 1965년 특별배당이 도입된후, 확정배당(79), 위험률차배당(84), 이자율차배당 및 장기유지특별배당(88)제도가 폐지 또는 존속되고 있음.
- 사업비차배당금은 보험계약자별로 사업비차이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, 생보사의 경우 2001사업년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.

□ 보험사, 3월 결산을 앞두고 주가지수에 비상

-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생보사와 손보사가 유가증권 평가손의 원인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나 악화되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3월 결산을 앞두고 3월 30일자의 주가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-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생·손보사의 보유주식 및 수익증권 규모는 총 20조 7,278억원으로 주가변동에 따라 적자규모가 확대되느냐,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됨.
- 손보업계에 의하면 종합주가지수가 504.62포인트로 떨어졌던 12월말 기준 11개 손해보험사의 유가증권 평가손은 3,426억원에 달했으나 주가가 617로 상승했던 1월말에는 1,399억원으로 60%(2,030억원)나 평가손이 줄어 보험사들이 一喜一悲하였음.
- 보험사들은 종합주가지수가 700선까지는 올라야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추가상승을 기대했으나 올 2월말 주가가 570대로 떨어졌고 3월 들어 추가 하락하면서 보험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음.
- 3월말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를 535로 잡고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한 제일화재 등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을 간신히 넘긴 보험사들은 최근 주가지수에 초긴장을 하고 있음.
- 금호, 신한, 대신생명 등 지급여력비율이 기준(100%)을 겨우 넘긴 생보사들은 이달말 증자를 단행할 예정인 등 지급여력비율 맞추기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임.
-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보유주식을 줄이고 있으나 주가 등락이 심해 매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생각보다 주식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음.